

資本主義와 哲學思想

辛日鎔

現代文化의 一般的 特徵이라하면 누구나 부르조아文化(資本文化)와 푸로레타리아文化(勞動文化)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것이외다. 그런데 이 두 文化의 特徵의 由來와 源因을 考察하여 보면 그 焦點은 반드시 近代의 經濟生活上 一般的特徵으로 歸着되고 말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資本을 所有한 階級-有産階級-이 資本을 所有하지 아니한 階級-無産階級-을 支配하게 된 그事實이 곧 이 特徵의 根本的原因이 되는 同時에 原動力이 되어서 兩階級の 經濟生活의 反影的文化를 形成하기에 至한것이외다.

그럼으로 모든 精神文化(文學, 藝術, 哲學, 倫理, 政治) 까지 必然的으로 分野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 方面으로 分野된 모든 文化의 特徵을 말하지아니하고, 다만 資本主義와 近世哲學과의 關係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一面으로는 푸로레타리아哲學의 使命과 歸趨에 簡約히 論及하고자합니다.

그러하나 本論에 드러가기前에 먼저 讀者諸君은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될 問題가 잇슬가합니다. 그란 假令 엇더한 哲學上學說이 새로 提唱된다하여도 그學說은 반드시 모든 傳統에서 超越한 것이 아니라 함이외다. 다시 말하면 그 學說을 말한 그 사람부터 階級的 因緣과 因習的 思想에서 完全히 絶緣된 個體가 아닌것과 그 學說의 本體도 亦是 全然히 純粹한것이 될 수 업난 것이라함이외다.

그뿐아니라 分野되는 過程에 在하야도 階級的으로 分立된 사람들 사이에는 엇더한 新主張과 新發明이 發生할새에, 이것을 自群의 生活上 特徵과 觀照하야써 合說明을 興하랴고 努力한다. 그런데 이와 가튼 劃然한 矛盾律의 形成과 共히 中間階級的의 調和, 緩衝의 努力이 必然的으로 形成되는 矛盾律로 하야금 一種畸形의 態度를 作케하는것은 看過하지못할 重要한 問題외다. 이러한 前提를 두고 本論에 드러간다면 讀者諸君의게 무슨 도움이될가?

우리가 近代哲學史를 읽을때에 가장먼저 面接하게되는 問題가 있습니다. 즉 現在社會의 支配階級の 人生觀 世界觀-宇宙觀-이외다. 또한 이에 關聯하여서 發生한 여러 가지의 思想形態일 것이외다. 이 階級思想은 原始的의 公山社會의 消滅과 가티 發生한 階級鬭爭-支配者和 被支配者の鬭爭-의 社會가 變遷成長함을 卞러 現出된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이 階級鬭爭의 社會에 在하야 난 支配者 階級은, 이의어든바[이미 얻은바] 富或은 地位에 依하야 比較的의 安閑한 生活을 하게되엿습니다. 그런고로 저들은 그 餘暇를 精神生活의 開拓에 다 傾注하게되엿습니다. 이와 가튼 背景아래에서 產出된 思想形態는 必然的으로 階級의 特色을 卞이게된 것이외다.

저 古代의 希臘의 哲學에서도 그러한 萌芽를 볼 수가 잇고, 印度의 哲學이나 支那의 哲學에서도 이러한 傾向을 볼 수 잇는것이외다. 그러나 이런 傾向과 特徵이 顯著하고 明瞭하게 發達된 形態를 가지고 出現되기는 實로 近代의 뿌로쵸아階級이 資本主義가 歐洲에 建設된 以來 새로히 支配階級이 되고 그 階級の 모든 觀念이 만흔 思想家-支配者擁護-에 依하야 表明된 時機잇소이다. 이러한 觀念들의 共通한 特徵은 二元論이외다. 卽 思想과 在와의 對照, 自然과 心靈과의 對照의 誤解가 뿌로쵸아階級の諸觀念의 特徵이외다. 그래서 이것은 이 階級の 精神的不透明과 그 世界의 事物을 그 眞實의 相互關係에 立하야 觀察할 能力을 缺하게된것에 起因한것이외다. 이러한 精神狀態는 一方으로는 人類의 階級의 分裂을 表明함에 不外한 것인同時에, 他一方으로는 社會의 生産이 交換(利潤取得)을 爲한 商品의 生産이 된 以後에 그 性質의 誤解를말함에 不過한것이외다.

原始的 共產主義의 時代에난, 生産의 狀態가 至極히 簡單하고도 明瞭하야 容易하게 누구나 理解할수잇든 人間은 그 生産의 支配者가 되는 同時에 優越한 自然力의 許諾하는 範圍內에서는 自己의 運命까지도 支配하게되엿든것이외다. 그리고 또 이런 生活相態아 래에서는 社會上의 諸觀念은 自然히 單純하고 明瞭하지아니할 수 업슬 것이외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個人的利害와 社會의利害와의 間에 거의 何等의 衝突과 矛盾이 업기 卞문에, 사람들은 善과惡사이에 嚴格한 區分線을 認識할 수도 업섯든 것이외다. 다만 往復하기어려운 自然力만이 神秘不可知의 力으로 存在하여 잇섯슬짜름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러한 自然力은 이 原始的自由社會의 우에 在하야 攝理하는 善意 或은 惡意의 權化(神力)로 化하고 만것이외다.

이와 가티 發生하야 成長한 思想形態는 遲々한 發達과 分裂을 經하야 오다가 近代에 至하야 商品의 生産이 激增함을 卞러서 畫面을 一變하게된 것이외다.

文化的으로 發達하여 온 人間性은 스스로 統禦하기 어려운 變幻的不可思議의 自然力의 威壓에서 脫却하게 될 것을 깨닫게된 것이외다. 즉, 오래동안 거의 無意識으로 變遷發達하여서 不知中信力의 攝理라는 抽象的威壓에서 解放 되려는 自覺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時代에 다시 새로운 妖魔-資本力-가 社會相態의 품안에서 出現하였습시다.

「即 從來와 갓치 生産者가 스스로의 生産物을 스스로 消費하는 대신에, 그것을 交換界-市場-에다 提供하게된 까다락에 저들은 忽然히 그 生産物에 對한 支配統禦할 能力이 失塗되고 말었다. 저들은 받서 自身이 生産한 生産物의 運命을 아지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生産物이 他日에 生産者의 開發과 壓迫을 爲한 必要品으로 使用될 可能性이 現出하였다- 生産物이 도로혀 生産者를 規定하게 되었다. (엥겔쓰 Engels. S). 이것은 資本主義가 哲學思想에 變化를 與한 眞相을 말함외다.

商品의 生産에 在하여 完成되야잇난것은 個人的生産者의 目的하는 바이나니라, 其背 後에 在한生産力을 目的하는 것이 되고말엇소이다.

提案하는 것은 人間외다. 그러나 處理하는 것은 사람보다 힘이強한 社會의 힘이외다. 그런고로 人間은 받서 自己의 運命의 支配者가 되지못하게 되었소이다. 生産은 그 相互關係에 在하여 더욱 複雜하게되고, 이것을 解決하기는 層一層 困難하게 된 것이외다. 生産單位가 個人인 것은 儼然 眞實이지만은, 그 個人的勞働은 社會生産의 全過程의 한從屬的部分에 不過하고 個人은 社會的生産의 우에 一器具로 存在하게 되었소이다.

多數者의 勞働으로 말미암어 產出된 果實은 少數者의 享樂資料로 提供되고갑니다. 社會的協力은, 生産者相互의 間의 激烈한 鬪爭의 背後에 隱蔽되어잇는것이외다. 個人的 利害는 社會의 利害와서로 爭鬪를 免치 못하게됩니다.

善, 즉 共同的 福利에 對한 考慮는 惡, 즉 私의利害를 爲하여 全部犧牲이 되고 마는것이외다.

사람々々의 感情과 理智는 그것이 이 鬪爭裡에서 擡頭하여 發達합니다. 그리하여 陶冶되고 力을 增하여 洗鍊된 後에는 一個의 優秀한 힘이 그 感情 그 理智의 無援한 所有者에게 對한 武器가 되는것이외다.

過去의 思想家들은 以上과 가튼 事態의 印象에서 그世 界觀을 思索形成하게된것이외다. 그래서 이와 同時에 저들은 所有階級の 一員이 되고 從하여 스스로 閑暇한 時間을 一定한 自己研究에 提供할 可能을 가지게됩니다. 그러나 그 自己研究에 當하여서도 스스로의 印象의 源泉에 接觸하지못한 것이외다. 印象의 源泉이라하면 社會的勞働의 過程인데 이것은 저들의 모든觀念의 社會的其原을 發見하게 할 唯一의 尺度의다. 이러한 根本的 事實에 接觸하지

못한 이階級에 屬한 사람들은 그자문에 모든 觀念이 엇더한 超自然的 或은 心靈的力의 放射된 것이라 推定하고, 乃至觀念 그 自體가 獨立的 超自然的 力이라고까지 推定하게 되었습시다.

이 二元論의 形而上學的思惟方法은 時代의 推移와 共히 諸般의 變遷을經한것이외다. 卽 이것은 生産方法의 進化에 投合되야서, 먼저 古代의 奴隸로부터 始作하야서 中世의 農奴制度 及 中世의商品生産의 時代를 經하야 畢竟近代資本主義時代까지 隨行되여온것이외다. 그 形態上的 變化는 먼저 希臘哲學으로 表現되고, 因하야 基督教々理의 諸方面에 波及되었소이다 그리하야 이것들의 進步가 近代哲學의 모든 體系와 合體하게된 것이외다.

그러나 우리 푸로레타리아는 이러한 所有階級の 哲學體系 及 宗教를 從來에 一般히 認定하고 잇난 것과 가티 認定할수업는 必然性에 逢着된 것이외다. 맞구어 말하면 그런 體系로써 單히 絶對眞理의 公理를 樹立코자하는 成果업을 企圖를 反覆할 必要가 업난 것을 알게되었습시다. 즉 그러한 것들은 人間의 精神이 精神自體 及 宇宙에 對하야 獲得한 知識의 進步의 階梯의 表現에 不過한 것이외다. 理解의 우에 滿足을 發見하는것이 哲學的 思想의 目標로 하는 것이외다. 그리고 그 理解가 아즉 自然的 手段에 依하야 全般的으로 滿足을 獲得하기 前까지는, 恒常 거기에 超自然과 不可思議가 侵入할 餘地를 與하게 되었습시다.

그런데 만흔 思想家들의 透徹한 心的努力에 依하야 科學上의 事物을 不斷히 増加를 繼續하야, 超自然과 不可思議의 領域은 漸々狹小하야지게되 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事實의 出現은 資本主義的 生産의 進步가 自然에 對하야 緊張한研究를 向上케 하기에 至한 以後에 더욱 顯著하게 된 것이외다.

大概 이 研究 通하야 人間의 精神은 스스로의 힘을 眞理의 繼續的 部分의 探究上에 傾注하야 單純, 冷靜, 堅固한, 그리고 有效한 力作에 依하야, 檢討할 能力을 엇게됨앗을 쏘아니라, 이와 가티 하야 絶對眞理追求의 絶望에 焦慮하는 地境에서 脫却하게 된것이외다.

그래서 幾多의 新眞理의 價値를 確立코자하는 要求가, 理解의 理論問題를 誘起한 것이외다. 이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는 企圖는 近代哲學의 諸體系의 恒久的 部分을 形成한 것이외다. 그런데 이것은 理解의 理論에 漸進的 進化를 表明하게 되었습시다. 그러나 이러한 哲學上諸體系 中에 介在한 超自然的 要素가 漸進的 進化의 完成을 妨害하는것은 事實이외다.

資本主義의 技術的 要求의 衝動 아래에 잇서々, 自然科學의 進化는 人間精神의 勝利를 자랑하는 行進曲이외다. 自然은 먼저 人間의 精神에 依하야 그

法則의 發見에 依하여 往復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人間의 生活上에 主要한 目的遂行上, 卽 最少의 「에너지-」의 消費에 依한 人生의 必需品生産上, 에在하여 既知의 自然力이 人間意思에 往復된 物質의 服從에 依하여 다시 往復되고 말것소이다. 그러나 絢爛한 光明은 人間의 社會現象을 圍繞한 暗影의 對照를 더욱々々深透케 한것이외다. 그럼으 資本主義는 그 發達上에 在하여此對照를, 一切의 對照를 觀知하기 容易하게, 또한 理解하기 容易하게하는 同時에, 一層 高彫한 것이외다.

그리하여 自然科學이 그 狹隘한 領域 內에 在한 모든 不可思議를 等閑에 附하고만 동안에는, 諸觀念의 起原과 進路를 閉塞하는 暗黑은 언제든지 心靈界의 神秘에 對한 信仰을 爲한 適好의 隱遁所가 된것이외다.

資本主義는 이제야 潰滅의 深淵에 臨하엿습니다. 社會主義는 眼前切迫하엿읍니다. 人間의 歷史上에 在한 此推移의 掖命의 重要性을 가장強調로 唱導한 것은 맑쓰와 엥겔쓰, 의 말이외다. 갈오대……

「資本主義의 破滅은 第一次 人間史를 終結케 한것이되리라. 이것에 依하여 人間은 動物的國土에서 確定的으로 自由社會에 脫出하게 되리라」하엿습니다.

生産의 社會的規定은 人間으로 하여금 完全히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 支配하는 者가 될것이외다.

이러한 重要性을 가지고 實現된 社會에 在하여는 如何한 神秘的 社會力이라도, 人間의 計劃을 壓迫하거나 或은 그 成功을 不能케하기 不能하게될 것이외다. 또한 如何한 神秘的 自然力도 발서 人間을 支配하지 못하게 될 것이외다. 人間은 自然力の 奴隸가 아니라 主人이 될 것이외다. 짜러서 社會力の 奴隸도 되지 아니하고 主人이 될 것이외다. 즉 自然界의 現象을 研究하고, 그것을 理解하여 自己의 必要에 應하여 往復맞고 그것을 支配하게 될 것이외다. 즉 自然界의 現象을 研究하고, 그것을 理解하여 自己의 必要에 應하여 往復맞고 그것을 支配하게 될 것이외다. 이와 가튼 意味에 잇서々 맑쓰가 말한 人間은 歷史上 第一次의 終結을 實現하고 同時에 처음으로 地上의 支配者가 될 것이외다.

우리는 이제야 所謂 人類의 文明史에 充滿한 만흔 時代, 만흔 社會現象, 만흔 進歩가 社會主義를 爲한 必然의 準備時代 及 至現象인것을 明瞭히 認知하게 되엿습니다. 卽 過去의 時代는, 自然의 奴隸의地 位에서 解放되고져하는 遲々한 奮鬪의 歷史외다. 또한 勞動의 生産能率의 漸進的으로 增大하게된 過程이 엿소이다. 이러한 準備時代가 잇슨 후에 畢竟萬人을 爲한 人生의 必需品이 거의 苦痛업시 엿게 되는 時代의 途程에 到達하게 되엿습니다.

그리고 資本主義가 極히 遲々한 進歩의 速度로 數世紀를 經過하여, 人間의 急激한 自覺에 依하여 自然을 往復할 能力을 賦與하게 된 것은, 그의 特殊한 功蹟이라고 是認할 點이외다. 그와 同時에 資本主義는 生産力을 解放하고, 終 乃 生産過程의 諸動力을 變形케하고, 그것을 露出하여써 모돈動力이 人間의 精神에 依하여 容易하게 認識되고, 理解하게 되었습시다. 이것은 生産過程의 統禦에 在하여 不可缺할 條件이었습시다.

商品의 生産이 激增된 以後에는 아즉껏 右와 如한 根本的改革이 한 번도 잇지 아니한 까닭에, 이러한 改革은 他一方에 同樣으로 根本的인 精神的革命에 依하여 伴來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외다.

經濟的 革命은 長久한 階級鬭爭의 時代와 商品 生産時代와의 結論일것 이 외다. 그리고이 러한 經濟的根底에서 發生한 二元論的, 超自然的思想의 最后期가 되고 말것이외다.

社會的 諸過程上에 在한 神秘는 이 時代와 가티 退去될 것이외다. 그 쯔만 아리나 神秘의 心靈的 說明은 當然히 廢絶되고 말것이외다. 이에 人間의 思想은 無智로브터 理解에 向하는 緩慢한 發達途程은 그 第一幕을 結하게 될 것이외다. 이것은 哲學의 完成과 結論을 表明하게 되는 것이외다. 밋구어 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갓흔 哲學은 存在의 圈外에 沒落되고 그 定席에는 代身으로 自然科學의 一部分되는 人間의 精神科學이 形成될 것이외다.